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과제

A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care Centers

1. 서론

본고는 정부가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이다.¹⁾ 동 조사는 2004년 11월 8일부터 2005년 1월 4일까지 조사표를 이용한 기초전수조사와 심층조사로 이루어졌다. 기초전수조사의 대상은 전국 보육시설 전체로 총 24,219개소²⁾이며, 이 중 설립유형, 지역별로 10% 보육시설을 무선 표집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전수조사는 우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심층조사는 우편으로 발송한 후 조사원이 보육시설에 방문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관찰과 교사 면접 후에 수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전수조사표는 총



이 미 화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이미화의,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참고. 이는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제2권)의 일환임.

2)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을 통해 취합한 보육시설 주소록을 재정리함.

16,938부(회수율 70%), 심층조사표는 총 2,400부(회수율 99%)이다.

조사 분석을 위하여 설립주체별 설립유형과 지역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설립주체별 시설유형은 8개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단체, 민간개인, 직장, 가정(놀이방), 공동육아)을 일차적인 변인으로 채택하였고 필요한 경우 4개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놀이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과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보육아동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보육시설의 시설현황,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중심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보육시설 현황

1) 보육시설 일반 현황

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국·공립 7.0%, 사회복지법인 71.1%, 기타법인 41.1%, 단체 1.1%, 민간개인 46.4%, 직장 0.9%, 가정(놀이방) 33.2%, 공동육아시설 0.2%로 2004년 6월 현재 여성부 보육통계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표 1 참고). 보육시설은 1990년대에 45.2%, 2000년대에 50.9%가 설립되었으며, 국·공립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법인시설은 1990년대, 민간개인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정(놀이방)시설은 2000년대에 급격히 설립되었다(표 2 참고). 시설의 보육아동규모는 21명 미만이 36.3%로 가장 많고, 21~39명 30.3%, 40~59명 9.8%, 60~79명 7.5%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보육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단독건물 35.3%, 아파트가 27.9%, 상가가 17.4%, 주택 6.0%, 종교단체 건물이 5.7%였다. 가정(놀이방)시설의 경우는 아파트인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고, 민간개인시설의 경우는 단독건물(42.9%) 다음으로 상가건물(31.2%)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임대여부를 살펴보면, 52.1%가 자가이고, 민간개인시설이 자가비율이 39.9%로 특히 낮았다.

표 1. 설립유형별 응답시설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시설비율(빈도)	여성부 보육통계(2004. 6)
국·공립	7.0 (1,179)	5.3
사회복지법인	7.1 (1,205)	6.5
기타법인	4.1 (696)	3.2
단체	1.1 (187)	
민간개인	46.4 (7,861)	46.1
공동육아	0.2 (30)	
직장	0.9 (155)	0.9
가정(놀이방)	33.2 (5,625)	37.9
계	100.0 (16,938)	100.0(25,319)

자료 : 이미화의,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표 2. 설립유형별 설립년도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1979년 까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국·공립	1.0	34.1	54.5	10.3	100.0 (1,163)
사회복지법인	8.1	2.6	77.9	11.4	100.0 (1,192)
기타법인	1.0	4.4	80.1	14.5	100.0 (685)
단체	0.5	2.2	61.2	36.1	100.0 (183)
민간개인	0.2	0.7	48.1	51.0	100.0 (7,662)
직장	0.0	1.3	56.9	41.8	100.0 (153)
가정(놀이방)	0.0	0.2	26.9	72.9	100.0 (5,542)
공동육아	0.0	0.0	31.0	69.0	100.0 (29)
계	0.8	3.2	45.2	50.9	100.0 (16,609)

자료 : 이미화 외,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2) 보육시설운영 현황 및 요구

평일 보육원아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8~10시간 미만'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8~10시간이 가장 많았으나, 직장시설의 경우는 10~12시간 미만이 41.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보육시설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3. 설립유형별 시설 규모

(단위: 개소, %)

구 분	21명 미만	21~39명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계
국·공립	2.1	4.7	24.0	24.1	22.7	22.4	100.0 (1,157)
사회복지법인	1.2	6.0	10.2	17.1	28.4	37.1	100.0 (1,174)
기타법인	2.5	19.7	32.7	17.8	16.0	11.3	100.0 (675)
단체	5.5	30.1	20.2	18.0	11.5	14.8	100.0 (183)
민간개인	5.6	60.4	12.1	7.7	6.8	7.4	100.0 (7,614)
직장	9.3	32.0	22.0	11.3	10.7	14.7	100.0 (150)
가정(놀이방)	100.0	0.0	0.0	0.0	0.0	0.0	100.0 (5,449)
공동육아	37.9	51.7	3.4	0.0	0.0	6.9	100.0 (29)
계	36.3	30.3	9.8	7.5	7.7	8.4	100.0 (16,431)

자료 : 이미화 외,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취업모 가정의 보육 요구시간대를 보면 오후 8시까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오후 6시까지로 45.0%였다. 가정(놀이방)시설의 경우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오후 10시까지와 오후 10시 이후에도 보육을 요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대도시일수록 오후 10시까지 보육을 요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아모집 문제 34.8%, 재정 관련 문제 25.3%, 종사자관련 문제 11.7%, 안전 문제 8.1% 순이었다. 민간과 가정(놀이방)시설의 경우는 원아모집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반면 정부지원 시설인 국·공립시설의 경우 시설 설비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었다.

시설 운영 시 개선점은 시설 설비 개선 문제(33.4%)와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 개선 문제(33.2%)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시설 설비 문제를, 민간과 가정(놀이방)시설은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 개선 문제를 개선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요구 61.8%, 보육환경 개선 19.8%, 교재교구 기자재 구입비 7.9% 순이었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유용한 정보 및 자료 제공 54.0%, 교사 보수 교육기회 확대 20.5%, 보육행정의 전산화 13.3% 순이었다.

표 4. 설립유형 및 지역별 평일 이용시간(복수응답)

(단위: %)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
전체	8.8	30.2	36.8	20.3	3.8	100.0
설립유형						
국·공립	1.4	28.1	45.9	22.5	2.1	100.0
사회복지법인	3.2	31.6	42.0	20.2	2.9	100.0
기타법인	4.9	30.1	41.2	20.7	3.1	100.0
단체	7.6	32.6	39.1	16.2	4.5	100.0
민간개인	12.6	32.9	32.8	17.9	3.9	100.0
직장	3.0	13.6	38.6	41.0	3.9	100.0
가정(놀이방)	12.4	20.2	33.3	26.7	7.5	100.0
공동육아	1.2	9.7	53.2	30.5	5.4	100.0
지역						
대도시	8.3	29.8	34.8	22.5	4.6	100.0
중소도시	10.5	30.5	36.1	19.3	3.6	100.0
읍면지역	7.2	30.5	41.6	17.9	2.9	100.0

자료 : 이미화 외,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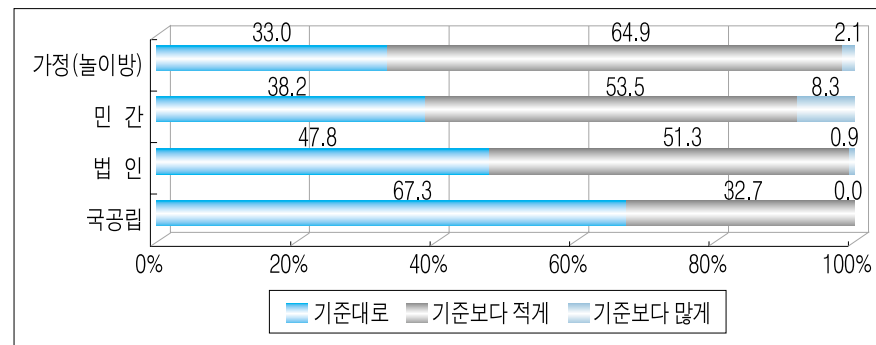
3) 재정 운영 현황

보육료 수준을 기준단가와 비교해볼 때 전체 시설 중에서 기준보다 적게 받는 비율이 56.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읍면지역이, 설립유형에 있어 가정(놀이방)과 단체시설이 기준단가에 비해 보육료를 적게 받는 시설이 많았다(그림 1 참고). 보육료 액수는 종일제와 반일제 모두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2세 미만의 종일제 보육료 평균금액은 약 25만6천원 정도이며 만 2세 종일제 보육료 21만 8천원, 만 3세 이상 17만6천원이었다. 반일제는 만 2세 미만 약 17만8천원, 만 2세는 15만6천원, 만 3세 이상 13만5천원 정도였다.

수입내역은 부모부담금 59.8%, 정부지원금 37.3%, 기타수입 3.0%로 나타나 부모 부담금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놀이방)과 공동육아, 민간개인시설이 수입 총액 중 부모부담금 비중이 높았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높아 59.8%, 시설운영비 34.2%, 기타지출이 6.1%이며 지역, 설립유형에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다. 시설운영상의 채무가 있는 시설이

전체의 37.4%이며, 지역별로 중소도시가 357개소로 가장 많았다. 채무가 있는 시설 수 및 금액이 가장 많은 설립유형은 민간 개인시설이었으나 평균 채무액수는 직장, 공동육아, 단체시설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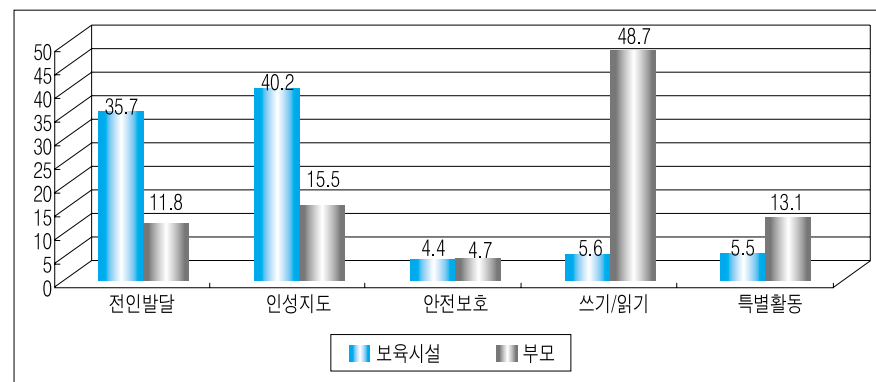
그림 1. 설립유형별 보육료 수준



4) 보육서비스 현황

보육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보육프로그램, 안전관리, 건강 및 영양관리,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보육시설이 가장 중점을 두는 유아반 보육내용은 인성지도(40.2%)인 반면, 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유아반 보육내용은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48.7%)이었다(그림 2 참고). 영아반 보육내용에 있어서는 보육시설과 부모의 요

그림 2. 보육시설과 부모가 강조하는 유아반 보육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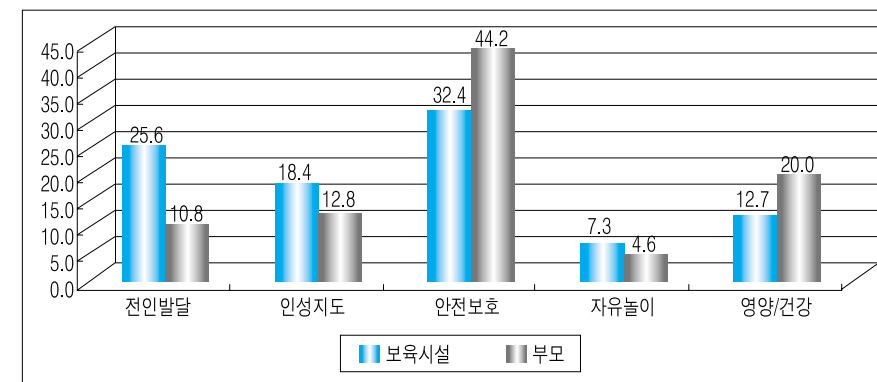
구가 가장 높은 내용은 안전한 보호로 나타났다(그림 3 참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는 전체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이상 미흡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30.5%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차량운행을 운행하는 비율이 7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량운행의 주 운전자는 운전기사 50.9%, 시설장 40.4%이 담당하며, 차량운행시 동승자는 보육교사가 8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설장 8.2%, 운전자 이외에 아무도 동승하지 않는 위험한 경우도 5.8%로 나타났다.

건강과 영양 관리측면에서는 보육시설의 83.1%가 재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의 92.3%가 보육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환경 및 위생 건강관리에 대해 조사원이 방문, 조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대처는 37.1%만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시설의 실내 환경 및 위생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정과의 주된 의사소통방식은 가정통신문 28.6%, 전화 24.3%, 직접 대면 21.0%, 연락장 19.7% 순이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32.2%), 다소 부족하다(31.7%), 매우 부족하다(23.2%), 잘 이루어지고 있다(12.9%)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민간개인과 가정(놀이방)의 경우 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보육시설과 부모가 강조하는 영아반 보육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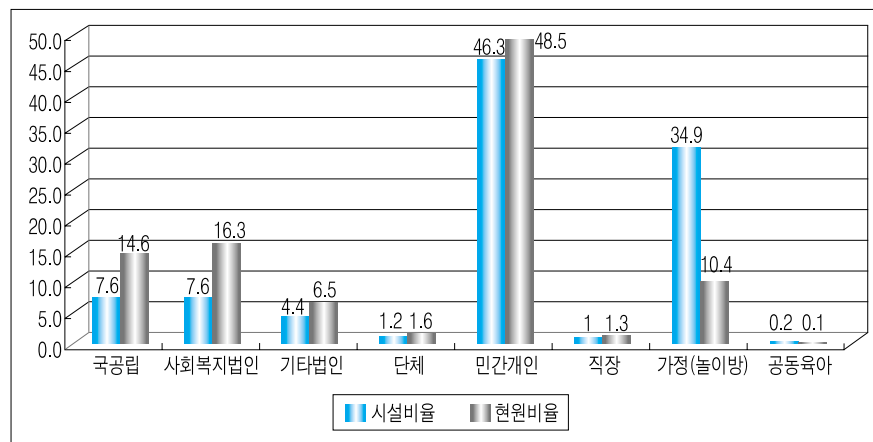
3.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

1) 보육아동 현황

전수조사에 응답한 시설 14,580개소에서 조사된 보육시설 현원은 592,542명이었다. 이를 시도별로 비교해 볼 때 현원이 제일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12,495명(19.0%), 그 다음으로 서울 110,150명(18.6%)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민간개인시설의 현원이 전체 현원의 49.5%인 293,455명으로 보육아동의 1/2이 민간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고).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37.4%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가정(놀이방)시설은 시설수로는 31.9%를 차지하는 반면 아동 비율은 10.1%로 낮은 편이다.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89.1%였다. 시도별로 제주가 가장 높은 정원 충족율을 보이고 전남, 충남, 서울, 인천의 순으로 정원 충족율을 보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96.0%, 기타법인시설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놀이방)시설이 8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5 참고). 시도별로는 정원 평균이 전남 60.58명, 제주 60.21명, 충북 57.40 순이었고, 대전이 29.06명으로 가장 적었다. 현원의 경우는 제주 56.64명, 전남 56.13명, 충북 49.35명, 전북 49.34명 순이었고, 현원의 경우도 대전이 24.75명으로 가장 적었다(그림 6 참고).

그림 4. 설립유형별 시설비율 및 보육아동 비율 비교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는 만 0~1세반이 평균 5.02명이었고, 2세반이 6.94명으로 나타났다. 만 3~5세반의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는 16.69명이며, 방과후반의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는 14.87명이었다.

전체 보육시설 현원의 28.8% 정도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보육시설 중 78.1%가 보육료 지원아동이 있다. 장애아동은 현원의 1.9%로 나타났고, 보육시설 중 20.8%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취업모 가정의 아동은 현원의 46.6%로 나타났고, 취업모 가정의 아동이 있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81.5%였다. 연령별로는 만 1세 미만 및 만 1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5. 설립유형별 정원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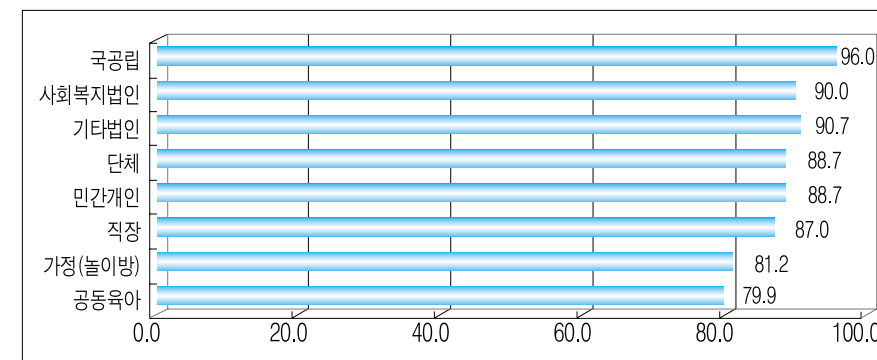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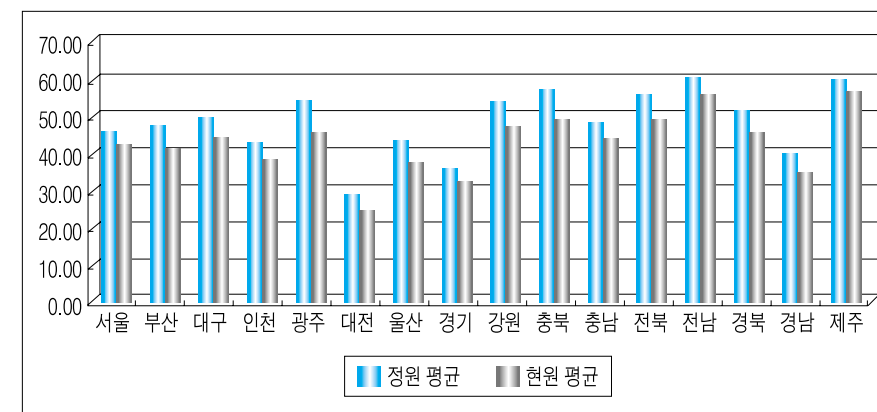


그림 6. 16개 시도별 정원 충족률



2) 보육교사의 현황과 요구

전체 보육교사 중 미혼이 57.5%로 국·공립이나 법인보육시설에 미혼인 교사가 많고 가정(놀이방)보육시설은 기혼인 교사 비율이 높았다.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비율이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참고). 학력수준은 전문대졸 57.5%, 고졸 21.2%, 대졸 13.2%, 대학교 재학 6.3%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유아교육학 47.2%, 보육학 25.2%, 아동복지학 6.9%, 사회복지학 5.8%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월 급여 수준은 80~99만원 이하 27.7%, 100~119만원 이하 22.7%, 60~79만원 이하 22.4% 순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고).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조건을 심층조사한 결과,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이고, 정기휴가와 연월차 휴가는 평균 9일로 동일하였으나, 이용률은 각각 82.8%, 13.9%로 연월차 휴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들의 희망연봉은 1000~1500만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보수교육 불참 이유로는 대체교사가 없어서 36.0%, 정보를 몰라서 23.1%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는 '보수의 현실화'가 5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15.2%, '근로시간 단축' 14.4% 등으로 나타났다.

3) 시설장의 현황과 요구

보육시설 시설장은 여자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40.29세였다.

그림 7. 보육교사의 근무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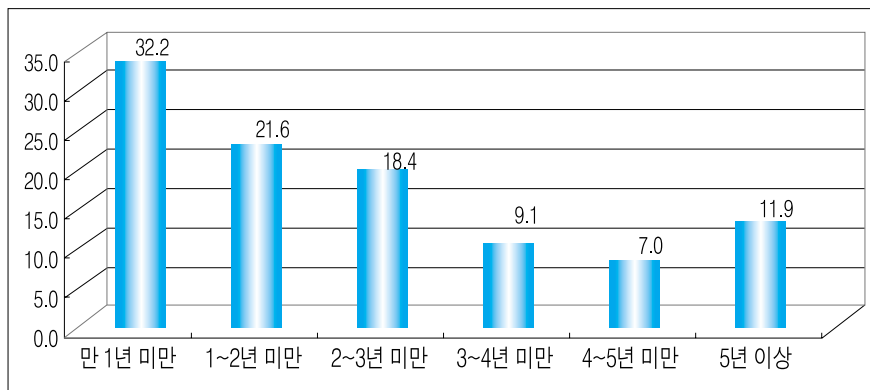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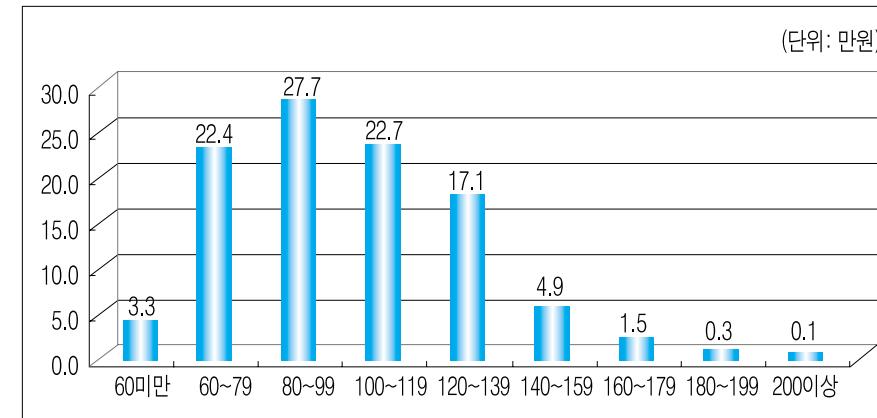


그림 8.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설립유형별로 법인시설이 남자 시설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시설이나 가정(놀이방)시설 시설장의 평균 연령이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장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39.4%), 대졸(23.2%), 고졸(17.0%), 대학원졸(10.0%)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 많고 민간이나 가정(놀이방)시설은 고졸, 전문대졸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시설장은 대학교 재학 이상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고졸과 전문대졸이 많았다. 시설장의 51.5%가 1급 보육교사 자격이고, 시설장 경력은 평균 5년 3개월이었다. 시설장 자격 취득 경로는 보육교사 교육원 41.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30.6%,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17.1%,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5.0% 순이었다.

그러나 40인 미만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어 보육교사의 일반 특성과 겹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0명 이상의 보육시설의 시설장의 일반현황과 비교해 보았다. 40명 이상의 보육시설 시설장은 40명 미만의 시설장보다 전반적으로 남자 시설장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연령도 4살이 많았으며 학력과 경력에서도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제언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방안

첫째, 지금까지 보육정책은 양적확충에 치중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점검이 매우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이 확보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는 재정투자와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육정책은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 즉,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재정부담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즉, 투자된 정부재정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보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아동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개인과 가정(놀이방)등 미지원 시설은 교사 인건비 보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국·공립과 법인의 경우는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보육시설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확대가 필요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하다.

2) 보육서비스 향상 방안

첫째,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통합적,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보육교사들이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 교수·지도 자료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실태와 안전 시설설비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전 시설설비 설치를 위한 재료와 인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은 영유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게 되므로 영유아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교육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원을 목표로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가정 내 문제발견 및 예방, 부모 지원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 성격을 띠고, 보육시설과 아동,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복지관련 기관들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마련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들은 영유아보육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통과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인증제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

첫째, 보육교사직의 전문성이 신장되려면 현재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졸 인력의 비율을 낮추고, 보육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등 보육관련학을 전공한 전문대졸업자나 대학졸업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육교사의 수를 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보육교사들이 법정 휴가일수에 맞추어 휴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재충전시키고 새로운 활력으로 보육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정부기관, 단체 등에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수교육 정보가 활발하게 안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대체교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보육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시설장이 되면 보육교사간의 직무체계를 따라가기 어렵고 보육실무에 혼선을 빚기 쉽다. 향후 시설장이 되는 인력은 보육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장기간을 경험을 충분히 쌓은 사람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